



글로벌 AI 벤처투자 동향과 투자 집중 구조: 국내 현황과 시사점

Global AI Venture Investment and Concentration:
Implications for Korea

· 안미소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AI정책연구실 선임연구원 | misoan@spri.kr

EXECUTIVE SUMMARY

본 보고서는 글로벌 및 국내 AI 벤처캐피털(VC) 투자를 국가·투자단계·기업·거래 규모·기술 분야별로 다차원 비교 분석하여, 투자 확대 이면의 자금 집중 구조와 국내 투자환경의 특성을 함께 조명한다. 글로벌 AI 벤처투자는 전체 VC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투자금액 비중은 2021년 23.5%에서 2026년 상반기 75.9%로 상승한 반면 거래건수 비중은 20.4%에서 36.6%로 비교적 완만하게 증가해, 최근 시장 확대가 거래건수 증가보다 개별 거래의 대형화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확대와 함께 자금 집중도도 심화되고 있다. 2026년 상반기 미국은 글로벌 AI VC 투자금액의 84.1%, 후기단계는 단계 식별 거래 투자금액의 72.8%, 상위 10개 피투자기업은 67.5%를 차지했다. 2,500만 달러 이상 대형 투자에서는 AI 모델 분야 비중이 61.0%까지 상승해 미국의 후기단계 프런티어 AI 기업을 중심으로 한 반복적인 초대형 후속 투자가 최근 시장 확대를 주도하는 구조가 확인된다.

국내 AI VC는 절대 투자 규모가 크게 확대되지 않은 가운데 전체 VC 시장 축소로 상대적 비중이 높아졌으며, 2025년 이후 후기단계, 상위기업, 대형 거래 중심의 투자구조가 강화되고 있다. 분야별로는 글로벌의 AI 모델 중심 구조와 달리 2026년 상반기 AI 반도체 33.4%, AI 모델 26.8%로 두 분야가 전체 투자금액의 60.2%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성장단계의 대규모 자금공급 확대와 함께 초기 스타트업의 투자시장 진입 기회를 유지하고, 초기 투자 이후 기술개발, 사업화, 스케일업 과정에서 성장자본이 연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 기업 구성과 기술 기반을 고려해 분야별 기술개발 기간과 자본 수요에 맞는 자금조달 경로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Global AI venture investment has expanded rapidly as a share of the overall VC market. The share of AI in total VC investment value rose from 23.5% in 2021 to 75.9% in the first half of 2026, while its share of deal count increased more moderately from 20.4% to 36.6%. This divergence indicates that recent market growth has been driven more by larger deal sizes than by broad-based growth in the number of transactions.

Investment has also become increasingly concentrated. In the first half of 2026, the United States accounted for 84.1% of global AI VC investment value, later-stage deals for 72.8% of stage-identified investment value, and the top 10 investee companies for 67.5%. Among deals of USD 25 million or more, AI model companies accounted for 61.0%, highlighting the growing influence of repeated mega-rounds by later-stage frontier AI firms.

Korea shows a different pattern. The absolute scale of AI VC investment has remained broadly stable, while AI has gained a larger share of the domestic VC market as the overall market contracted. Since 2025, investment has become more concentrated in later-stage firms, top investees, and larger transactions. Unlike the global market, where AI model investment dominates, AI semiconductors and AI models accounted for 33.4% and 26.8%, respectively, in Korea in the first half of 2026.

These findings suggest that policy should preserve entry opportunities for new and early-stage firms while strengthening continuity between initial, follow-on, growth, and long-term capital. Financing pathways should also reflect Korea's industrial and technological base and the different development periods, capital requirements, and commercialization paths across AI fields.

I

연구배경 및 목적

○ 생성형 AI 확산 이후 글로벌 AI 시장의 고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투자자금은 일부 국가와 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집중되는 양상

- **(AI 시장 성장)** Statista(2026)에 따르면 세계 AI 시장은 2026년 약 6,176억 달러에서 2032년 약 1조 4,200억 달러로 확대되어 연평균 14.8% 성장할 것으로 전망¹
- **(대규모 자금조달 확대)** AI 모델 개발과 컴퓨팅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자본 수요가 증가하면서 주요 AI 기업의 대규모, 반복적 투자 유치 확대
 - OpenAI와 Anthropic 등 프런티어 AI 기업은 모델 개발과 컴퓨팅 역량 확충을 위해 대규모 후속 투자를 반복적으로 유치^{2,3}
- **(메가딜 영향 확대)** 글로벌 AI VC 시장에서도 대형 거래가 전체 투자금액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빠르게 확대
 - OECD(2026)는 1억 달러 이상 메가딜 비중 확대와 함께 대형 거래가 최근 글로벌 AI VC 투자금액 증가를 주도하는 특징을 지적
 - AI 투자시장 확대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총투자 규모뿐 아니라 국가, 성장단계, 기업, 거래 규모, 기술 분야별 자금 배분 구조를 함께 살펴볼 필요

○ 국내 AI 기업에서도 투자 유치의 어려움이 확인되고 있어 글로벌 투자구조 변화와 비교한 국내 투자환경 점검 필요성이 확대

- **(국내 자금조달 여건)** 국내 AI 기업에서도 투자 유치의 어려움이 주요 사업상 애로로 부상하며, 글로벌 투자구조 변화와 비교한 국내 투자환경 점검 필요성이 확대

¹ <https://www.statista.com/outlook/tmo/artificial-intelligence/worldwide?currency=USD%2F&>

² <https://openai.com/ko-KR/index/accelerating-the-next-phase-ai/>

³ <https://www.anthropic.com/news/series-h>

- SPRi의 「2024년 인공지능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AI 기업의 84.9%가 '투자 유치의 어려움'을 사업 운영상 애로사항으로 응답*

* 매출액 규모별로는 1,000억 원 이상 기업만 46.8%로 비교적 낮은 편이나, 1,000억 원 미만 전 구간에서 70%대 이상(1억 원 미만 89.6%)이 응답해 매출 규모가 작을수록 자금조달 부담이 뚜렷하게 커지는 구조⁴

- 이처럼 매출 기반이 크지 않은 다수의 국내 AI 기업이 스케일업 과정에서 자금조달 어려움에 노출되는 만큼 국내 투자시장의 특성을 점검할 필요

○ (연구 목표) 2021~2026년 상반기 글로벌 및 국내 AI VC 투자자료를 활용하여 투자 확대와 자금 집중 구조를 분석

- 글로벌 시장의 국가별, 투자단계별, 거래 규모, 기술 분야별 투자구조를 살펴보고 최근 투자 집중의 특징을 분석
- 국내 시장의 투자 규모, 성장단계, 기업, 분야, 거래 규모를 비교하여 투자 접근성과 후속·성장자본 확보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 **일러두기:** 글로벌·국내 AI VC 투자 동향은 PitchBook 데이터를 기준으로 분석하였으며, 국내 주요 기업의 투자 유치 현황은 기업 발표자료 및 주요 보도자료를 함께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1 투자 동향 산정 기준

◆ AI 관련 VC 투자거래를 대상으로 2021~2026년 상반기 투자금액, 거래건수, 투자단계, 기업 및 분야별 투자구조를 분석

- 글로벌 및 국내 투자통계는 PitchBook 데이터를 기준으로 작성
 - VC 거래는 Venture Capital로 분류된 완료(Completed) 거래를 기준으로 하며, PE Growth/Expansion, Buyout, M&A 등 비VC 거래는 제외
- 국내 주요 기업의 투자 유치 현황은 기업 발표자료 및 주요 보도자료를 통해 보완
- 2026년 수치는 별도 표기가 없는 한 상반기 기준

⁴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2025), 「2024년 인공지능산업 실태조사」

2 데이터 한계 및 해석 시 유의사항

◆ 분석 결과는 조사 시점 기준 공개자료를 활용한 결과로, 실제 투자현황과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비공개 또는 사후 정정된 거래는 분석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
- 2026년 상반기 수치는 연간 수치와 직접 비교 시 유의가 필요
- 국내 주요 기업의 누적 투자 유치액은 기업별 공개 시점·발표 기준에 따라 PitchBook 수치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투자 승인·계획 또는 진행 중인 미종결 라운드는 누적 투자 유치액에서 제외

3 AI 분야 분류 기준

◆ 최근 투자 트렌드를 반영하여 기업의 핵심 사업모델과 주요 제품·서비스를 기준으로 AI 투자 분야를 7개 분야로 구분

- **AI 모델** | 파운데이션 모델, LLM, 생성형 AI 모델 등
- **AI 반도체** | AI 연산용 반도체, NPU, AI 칩 등
- **AI 서비스·앱** | 버티컬 AI, 엔터프라이즈 SaaS, 컨슈머 AI 서비스 등
- **AI 데이터** | 데이터 수집·가공·관리, 데이터베이스 및 데이터 플랫폼 등
- **AI 컴퓨팅 인프라** | GPU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AI 컴퓨팅 자원·인프라 등
- **피지컬 AI** | 물리적 시스템과 결합된 AI
- **기타** | 상기 분야로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AI 관련 기업

II 글로벌 AI 투자시장 동향

○ AI 벤처투자는 전체 VC 시장 내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는 동시에 국가·투자단계·거래 규모별 투자구조도 빠르게 변화

1. 글로벌 VC 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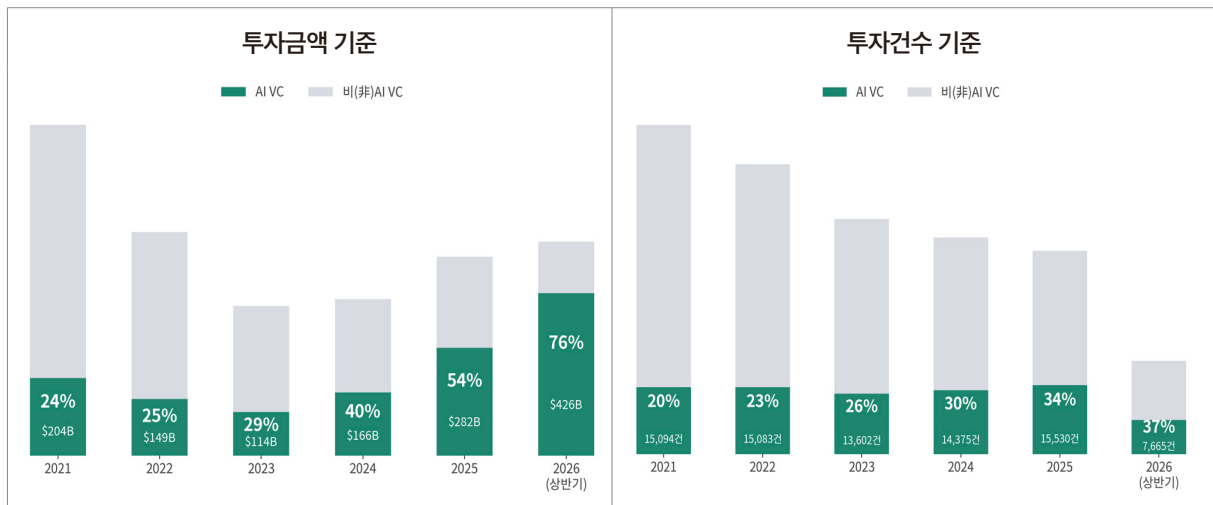
○ (AI 투자 확대) 전체 VC 시장에서 AI가 차지하는 투자금액 비중은 2021년 23.5%에서 2026년 상반기 75.9%로 급증한 반면, 거래건수 비중은 20.4%에서 36.6%로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상승

- 투자금액 비중 상승폭(52.4%p)이 거래건수 비중 상승폭(16.2%p)의 3배를 넘는 만큼, 최근 AI VC 시장 확대는 개별 거래의 대형화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결과로 해석
 - AI VC의 건당 평균 투자금액은 2021년 1,350만 달러에서 2026년 상반기 5,550만 달러로 증가
 - 전체 VC 평균 대비 AI VC의 건당 투자 규모도 같은 기간 1.15배에서 2.08배로 상승

[표 1] 글로벌 전체 VC 대비 AI VC 투자 규모 및 비중

구분 연도	투자 규모(백만 달러)			투자건수(건)			평균 투자 규모(배)		
	전체 VC (A)	AI VC (B)	비중 (B/A)	전체 VC (C)	AI VC (D)	비중 (D/C)	AI VC	전체 VC	A 대비 전체 평균
2021	866,396	203,802	23.5%	73,927	15,094	20.4%	13.5	11.72	1.15배
2022	586,000	148,663	25.4%	65,145	15,083	23.2%	9.86	9	1.10배
2023	392,361	114,119	29.1%	52,801	13,602	25.8%	8.39	7.43	1.13배
2024	410,220	165,912	40.4%	48,681	14,375	29.5%	11.54	8.43	1.37배
2025	520,756	282,314	54.2%	45,685	15,530	34.0%	18.18	11.4	1.59배
2026(상)	560,782	425,609	75.9%	20,961	7,665	36.6%	55.53	26.75	2.08배

[그림 1] 전체 VC 대비 AI VC 비중 추이('21~'26H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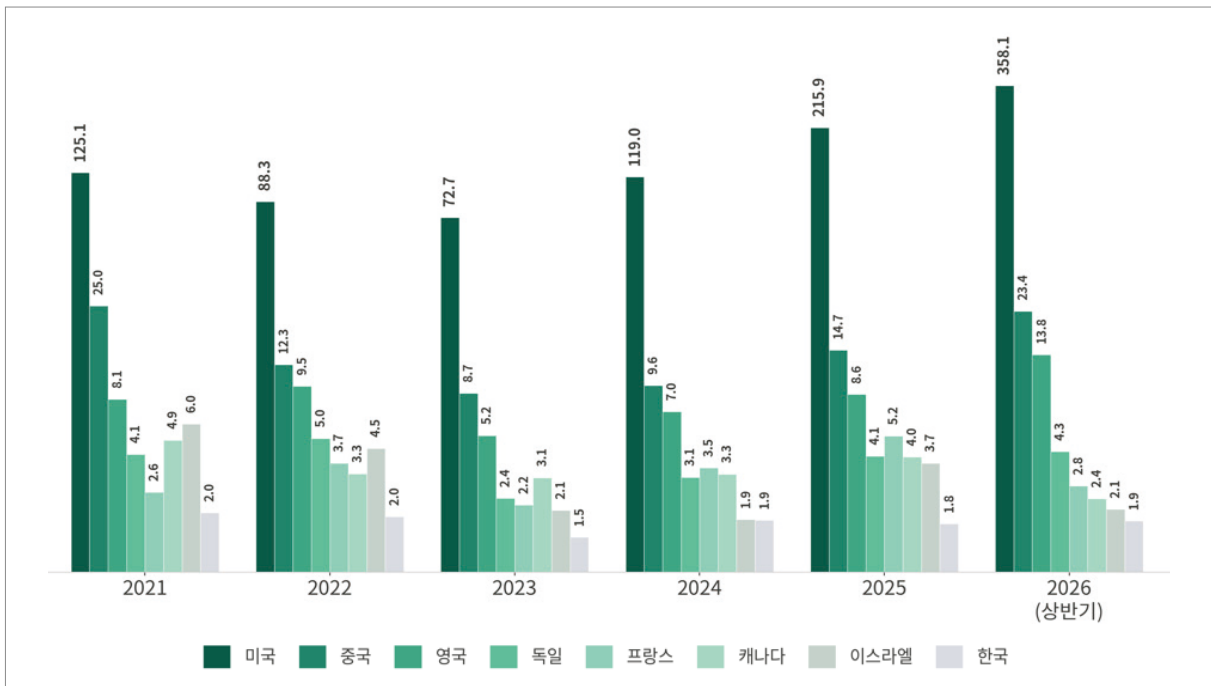
2. 국가별 동향 및 집중도

○ (국가별 투자) 미국이 글로벌 AI VC 시장을 압도적으로 주도하는 가운데 중국·영국이 주요 투자국으로 뒤를 잇는 구조가 지속

- **(미국)** AI VC 투자액은 2021년 1,251억 달러에서 2023년 727억 달러로 감소한 이후 2024년 1,190억 달러, 2025년 2,159억 달러로 반등했으며, 2026년 상반기 3,581억 달러로 급증
 - 2026년 상반기 OpenAI 1,220억 달러, Anthropic 950억 달러, xAI 200억 달러 등 프런티어 AI 기업의 초대형 후속 투자가 투자 확대를 주도
- **(중국)** 2021년 250억 달러에서 2023년 87억 달러까지 축소된 이후 2025년 147억 달러, 2026년 상반기 234억 달러로 회복
 - ByteDance 30억 달러, Stepfun 25억 달러, Rokid 20억 달러와 Moonshot AI의 반복 투자 유치 등 대형 거래가 이어지며 회복세에 기여
- **(영국)** 2023년 52억 달러에서 2025년 86억 달러, 2026년 상반기 138억 달러로 확대되며 주요 AI 투자국으로 부상
 - Nscale 34억 2,200만 달러, Isomorphic Labs 21억 달러, Wayve 12억 6,000만 달러 등 대형 후기단계 거래가 집중되며 2026년 상반기 투자 규모 확대를 견인

- (기타) 독일·프랑스·캐나다·이스라엘 등도 일정 규모의 투자를 유지하고 있으나 미국과의 격차는 지속
 - 2025년 기준 독일 41억 달러, 프랑스 52억 달러, 캐나다 40억 달러, 이스라엘 37억 달러 수준으로 나타남
 * 2026년 상반기 독일 Neura Robotics 14억 달러, 프랑스 Advanced Machine Intelligence 10.3억 달러, 캐나다 Waabi 7억 5,000만 달러, 이스라엘 DriveNets 4억 1,000만 달러 등

[그림 2] 주요국 AI VC 투자금액 추이(단위: 십억 달러)



[표 2] 주요국 AI VC 투자금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국가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상)
전체	203,802	148,663	114,119	165,912	282,314	425,609
미국	125,146	88,349	72,740	119,013	215,883	358,108
중국	24,977	12,271	8,694	9,560	14,665	23,420
영국	8,086	9,478	5,214	6,973	8,563	13,848
독일	4,149	5,032	2,437	3,141	4,067	4,284
프랑스	2,630	3,732	2,247	3,519	5,176	2,833
캐나다	4,932	3,275	3,132	3,271	4,017	2,435
이스라엘	5,982	4,462	2,109	1,892	3,729	2,142
한국	2,048	1,956	1,523	1,871	1,795	1,854

○ (국가 집중도) 미국의 투자 비중 확대와 함께 글로벌 AI VC 투자금액의 국가별 집중도도 빠르게 상승

- 글로벌 AI VC 투자금액 기준 상위 3개국*의 비중은 2021년 77.6%에서 2026년 상반기 92.9%로 상승
- 같은 기간 상위 5개국 비중은 83%에서 94.6%, 상위 10개국은 90.5%에서 97.1%로 확대
* 상위 3개국은 분석 기간 내 미국·중국·영국으로 유지
- 국가별 투자금액 점유율을 반영한 HHI⁵ 역시 2022년 3,684에서 2024년 5,217, 2026년 상반기 7,124로 상승
- 미국의 투자 비중과 HHI가 동시에 상승한 점을 고려하면, 최근 국가별 투자 집중은 상위국 순위 변화 보다는 미국 중심으로 투자금액이 재편된 결과로 해석 가능

[표 3] 글로벌 AI VC 투자금액 국가별 집중도

연도	미국 비중	상위 3개국	상위 5개국	상위 10개국	HHI
2021	61.4%	77.6%	83.0%	90.5%	3,968
2022	59.4%	74.1%	80.4%	89.8%	3,684
2023	63.7%	75.9%	81.2%	90.3%	4,178
2024	71.7%	81.7%	85.8%	92.4%	5,217
2025	76.5%	84.7%	88.0%	93.4%	5,898
2026(상)	84.1%	92.9%	94.6%	97.1%	7,124

* 주: 2021~2026년 상반기 상위 3개국은 미국·중국·영국으로 동일하며, 상위 5개국에는 이스라엘·독일·프랑스·캐나다가 연도별로 교차 진입. 2026년 상반기 기준 상위 5개국은 미국·중국·영국·독일·프랑스이며, 상위 10개국에는 캐나다·이스라엘·싱가포르·한국·스웨덴이 추가로 포함됨

3. 투자단계별 동향 - 후기단계 투자금액 확대

○ (후기단계 집중) 글로벌 AI VC의 투자금액 중심축은 후기단계로 빠르게 이동

- 후기단계 투자금액 비중은 2021년 55.8%에서 2023년 39.5%까지 낮아지며 초기단계 자금 비중이 확대되었으나, 2024년 46.5%를 기점으로 다시 상승 전환

⁵ 허핀달-허쉬만 지수(Herfindahl-Hirschman Index, HHI)는 국가별 AI VC 투자금액 점유율의 제곱합으로 산출하며, 값이 클수록 국가별 투자 집중도가 높음을 의미함

- 이후 후기단계 비중은 2025년 61.8%, 2026년 상반기 72.8%까지 확대된 반면, 같은 시점 시드·초기는 거래건수의 92.8%를 차지하였지만 투자금액 비중은 27.2%에 그침

- 거래는 시드, 초기단계에서 폭넓게 발생하지만, 투자금액은 후기 성장기업에 집중되며 대규모 스케일업 투자가 전체 시장 규모를 좌우하는 구조로 변화
- 특히 2024년 이후 이러한 전환이 뚜렷해져 프런티어 AI 기업의 컴퓨팅 및 모델 개발 수요 확대와 초대형 후속 라운드 증가가 후기단계 집중을 강화한 것으로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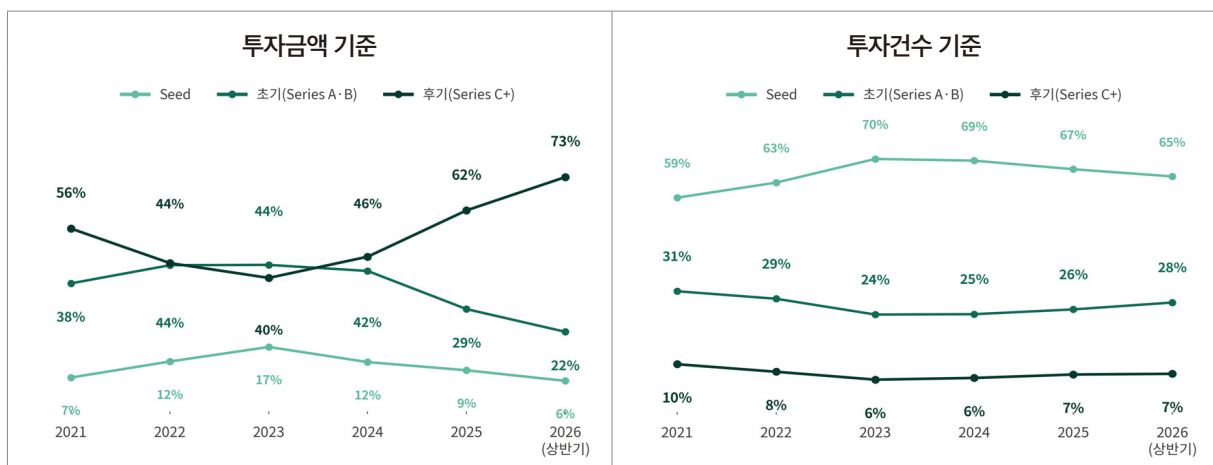
[표 4] 글로벌 AI VC 투자단계별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건)

성장 단계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상)
시드	건수 (비중)	4,953 (58.6%)	5,032 (63.0%)	4,682 (69.9%)	5,040 (69.4%)	5,229 (66.9%)	2,520 (64.8%)
	금액 (비중)	10,590 (6.6%)	13,919 (11.9%)	12,087 (16.7%)	14,582 (11.7%)	20,079 (9.0%)	14,170 (5.5%)
초기	건수 (비중)	2,647 (31.3%)	2,326 (29.1%)	1,643 (24.5%)	1,791 (24.6%)	2,033 (26.0%)	1,088 (28.0%)
	금액 (비중)	60,621 (37.7%)	50,962 (43.7%)	31,736 (43.8%)	51,903 (41.8%)	65,419 (29.2%)	56,207 (21.7%)
후기	건수 (비중)	849 (10.0%)	626 (7.8%)	370 (5.5%)	435 (6.0%)	549 (7.0%)	279 (7.2%)
	금액 (비중)	89,779 (55.8%)	51,764 (44.4%)	28,654 (39.5%)	57,793 (46.5%)	138,297 (61.8%)	188,618 (72.8%)

* 초기단계: 시리즈 A~시리즈 B, 후기단계: 시리즈 C 이상

[그림 3] 전체 AI VC 투자단계별 비중 추이('21~'26H1)



○(후속 투자 지속) 주요 투자라운드 간 평균 소요 기간은 분석 기간에 약 1.5~2년 수준을 유지

- 평균 라운드 간 소요 기간은 2021년 1.63년에서 2024년 1.92년으로 증가한 이후 2026년 상반기 1.81년을 기록
 - 2025년 이후 시리즈 F(Series F) 이상 후기 라운드의 투자 규모가 확대되며, 성장단계가 높은 기업의 대규모 자금조달이 증가
 - * 특히 2026년 상반기 시리즈 H 투자금액은 715억 달러로 확대되었으며, Anthropic의 대규모 투자가 해당 구간의 투자 규모 증가에 크게 기여

4. 거래 규모별 투자구조

○(초대형 거래 확대) 글로벌 AI VC 투자금액 증가에서 초대형 거래(10억 달러 이상)의 영향력이 빠르게 확대

- 10억 달러 이상 거래건수는 2021년 13건에서 2025년 22건, 2026년 상반기 34건으로 증가
 - 같은 기간 투자금액은 188억 달러에서 1,179억 달러, 3,167억 달러로 확대되며, 전체 AI VC 투자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약 9%에서 약 74%로 급증
- 최근 글로벌 AI VC 시장은 일부 초대형 거래가 전체 투자 규모 확대를 주도하는 구조가 뚜렷

[표 5] 거래 규모별 글로벌 AI VC 투자 동향

(단위: 건, 백만 달러)

구간 연도	2,500만 달러 미만		2,500만~9,900만 달러		1억~4억 9,900만 달러		5억~9억 9,900만 달러		10억 달러 이상	
	건수	투자 규모	건수	투자 규모	건수	투자 규모	건수	투자 규모	건수	투자 규모
2021	10,255	40,098	1,043	47,712	473	84,545	20	12,629	13	18,818
2022	10,265	40,342	890	40,115	306	50,204	16	10,428	6	7,575
2023	8,932	32,851	618	27,442	145	25,588	6	3,630	7	24,609
2024	8,998	35,261	711	31,702	200	35,482	18	11,697	14	51,771
2025	9,083	40,376	960	44,013	330	58,752	33	21,225	22	117,948
2026 (상)	3,938	19,192	606	27,585	239	45,985	25	16,159	34	316,688
규모별 소계	51,471	208,120	4,828	218,569	1,693	300,556	118	75,768	96	537,409

* 주: 개별 AI VC 투자거래의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거래 규모 구간을 구분하고, 연도별 전체 투자금액에서 각 구간이 차지하는 비중을 산출함 (투자금액이 확인되는 거래 대상)

○ (대형 거래 내부 변화) 2,500만 달러 이상 거래를 세분화한 결과, 대형 거래 내부에서도 투자 자금이 초대형 거래 구간으로 빠르게 이동

- 투자 규모 기준, 2021년은 1억~5억 달러 규모 구간의 거래 비중이 50.9%였으나, 2026년 상반기에는 10억 달러 이상 거래의 비중이 77.7%까지 확대
 - 같은 기간 3,000만~1억 달러 거래 비중은 27.0%에서 6.2%, 1억~5억 달러 거래는 50.9%에서 11.3%로 하락하며 초대형 거래 중심의 재편이 뚜렷

[표 6] 글로벌 AI VC 대형 거래 규모 구간별 투자금액 비중

연도	2,500만~ 2,999만 달러	3,000만~ 1억 달러	1억~ 5억 달러	5억~9억 9,900만 달러	10억 달러 이상	합계 (백만 달러)
2021	3.2%	27.0%	50.9%	7.6%	11.3%	166,134
2023	4.0%	31.0%	30.9%	4.4%	29.7%	82,769
2025	2.2%	16.7%	24.1%	8.7%	48.3%	244,064
2026(상)	0.9%	6.2%	11.3%	4.0%	77.7%	407,737

5. 기업 및 분야별 투자 집중

○ (반복 대형 투자) 대형 투자자금이 일부 기업에 반복적으로 유입되는 구조가 뚜렷

- 2021~2026년 상반기 2,500만 달러 이상 투자를 유치한 4,531개 기업 가운데 2회 이상 대형 투자를 유치한 기업은 1,451개(32.0%)였으나, 이들이 유치한 투자금액은 약 9,141억 달러로 전체의 80.7%를 차지
 - 기업 수 기준으로는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반복 투자 유치 기업이 대형 투자금액의 대부분을 차지

○ (상위기업 집중) 연도별 상위 피투자기업의 투자금액 비중도 2023년 이후 빠르게 상승

- 연도별 Top 3 피투자기업의 투자금액 비중은 2021년 3.6%에서 2026년 상반기 55.7%, Top 10은 같은 기간 8.9%에서 67.5%로 상승
 - 단일 투자거래 상위권에도 OpenAI, Anthropic, xAI 등이 반복적으로 포함되며, 프런티어 AI 기업의 초대형 자금조달이 최근 시장 확대를 견인

[표 7] 주요국 AI VC 상위 피투자기업 투자금액 비중('21~'26H1)

국가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H1
글로벌	Top 3	3.6%	3.1%	16.9%	19.0%	25.1%	55.7%
	Top 10	8.9%	7.6%	24.5%	30.3%	36.7%	67.5%
미국	Top 3	5.9%	5.3%	26.5%	26.5%	32.8%	66.2%
	Top 10	13.0%	11.5%	36.5%	42.0%	48.0%	79.1%
중국	Top 3	14.3%	14.3%	14.3%	31.7%	23.8%	41.7%
	Top 10	26.0%	28.2%	33.3%	57.9%	45.5%	63.6%
영국	Top 3	11.5%	19.2%	12.4%	23.2%	23.5%	49.0%
	Top 10	27.2%	36.6%	26.0%	36.8%	36.8%	73.1%
한국	Top 3	15.5%	17.4%	22.8%	27.9%	29.6%	55.8%
	Top 10	31.0%	34.3%	43.9%	44.5%	45.0%	74.5%

* 주: 각 연도·국가별 AI VC 거래를 투자대상 기업별로 합산하여 투자금액 상위 3개 및 10개 기업을 선정하고, 해당 기업의 투자 유치 금액이 해당 연도·국가의 전체 AI VC 투자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산출

[표 8] 글로벌 주요 AI 기업의 반복 대형 투자 사례

기업	시기	투자 라운드	조달 규모	주요 투자자	투자 유치 및 사업 특징
OpenAI	'24.10.	벤처 투자 라운드	66억 달러	Thrive Capital 등	프런티어 모델 연구와 컴퓨팅 역량 확충을 위한 대규모 자금조달로, 투자 당시 기업가치 1,570억 달러 평가
	'25.3.	벤처 투자 라운드*	400억 달러	SoftBank 등	AI 연구 확대와 컴퓨팅 인프라 확충 등을 목적으로 전년 대비 라운드 규모 확대
	'26.3.	기업 투자 라운드*	1,220억 달러	Amazon, NVIDIA, SoftBank, Microsoft 등	글로벌 전략·재무적 투자자가 대거 참여한 초대형 라운드로, 기업가치 8,520억 달러
Anthropic	'25.9.	벤처 투자 라운드	130억 달러	ICONIQ, Fidelity, Lightspeed 등	클라우드 기업용 수요 확대, 모델 개발 및 안전성 연구, 글로벌 사업 확장을 위한 성장자본 확보
	'26.2.	시리즈 G	300억 달러	GIC, Coatue 등	프런티어 연구·제품 개발·컴퓨팅 인프라 확대를 위한 후속 투자
	'26.5.	시리즈 H	650억 달러	글로벌 기관투자자 등	약 3개월 만에 다시 초대형 후속 투자를 유치하며 라운드 규모가 직전 시리즈 G의 2배 이상으로 확대
xAI	'24.12.	시리즈 C	60억 달러	a16z, BlackRock, NVIDIA, AMD 등	Grok 고도화와 AI 슈퍼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위한 대규모 성장자본 조달
	'26.1.	시리즈 E	200억 달러	NVIDIA 등	추론 인프라 및 거대언어모델 개발을 위한 후속 대형 투자로, 2024년 대비 라운드 규모 크게 확대
Databricks	'24.12.	시리즈 J	100억 달러	Thrive Capital 등	AI-데이터 전 생애주기를 지원하는 플랫폼 확대와 글로벌 성장 기반 확보를 위한 대규모 투자
	'25.12.	시리즈 L	50억 달러	Microsoft 등	AI 데이터 플랫폼과 클라우드 생태계 연계를 위한 후속 대형 투자

* 벤처 투자 라운드: VC 투자 중 세부 투자단계(시리즈 A, B, C 등)가 공개되지 않은 투자
기업 투자 라운드: 일반 기업이 주요 투자자로 참여하는 투자로, 전략적 투자 성격을 갖는 투자

○(분야 집중) 글로벌 AI 대형 투자의 중심은 2023년을 기점으로 AI 서비스 및 앱에서 AI 모델 분야로 빠르게 이동

- 2021~2022년에는 AI 서비스 및 앱 분야가 대형 투자금액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AI 모델 비중은 1%대에 머물렀으나, 2023년 AI 모델 비중이 21.0%로 상승하며 분야별 투자구조가 변화
 - AI 모델 비중은 2025년 34.7%에서 2026년 상반기 61.0%까지 확대된 반면, AI 서비스 및 앱 분야는 18.7%로 축소되어 대형 투자가 AI 모델 분야에 집중되는 흐름

[표 9] 글로벌 AI VC 대형 투자 분야별 투자금액 비중(2,500만 달러 이상)

연도	AI 모델	AI 반도체	AI 서비스·앱	AI 데이터	AI 인프라	피지컬 AI	기타
2021	1.5%	4.1%	73.9%	4.0%	5.0%	9.6%	1.8%
2022	1.5%	2.6%	78.2%	1.8%	4.6%	8.2%	3.1%
2023	21.0%	3.7%	55.2%	2.6%	4.1%	8.8%	4.7%
2024	27.6%	4.2%	37.1%	9.2%	5.2%	13.5%	3.2%
2025	34.7%	5.2%	34.9%	7.0%	5.4%	10.4%	2.4%
2026(상)	61.0%	1.5%	18.7%	1.9%	3.6%	11.5%	1.8%

○(국가별 대형 거래 분야) 주요국의 대형 AI 투자거래는 국가별 기업·산업 기반에 따라 투자 분야가 상이하게 나타남

- 주요국 대형 투자는 공통적으로 규모가 확대되는 가운데, 실제 자금이 유입되는 세부 분야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미국·중국은 생성 AI 모델 중심의 대형 투자가 두드러진 반면, 영국은 AI 클라우드 인프라, AI 신약개발 및 자율주행 SW, 프랑스와 독일은 로봇틱스, 방산 AI 분야가 투자를 주도

[표 10] 주요 국가 AI VC 대형 거래 Top 3

국가	기업	투자금액	시리즈	분야
미국	OpenAI	1,220억 달러	-	생성 AI 모델
	Anthropic	650억 달러	시리즈 H	생성 AI 모델
	OpenAI	400억 달러	벤처 투자 라운드	생성 AI 모델
영국	Nscale	34.2억 달러	시리즈 C	AI 클라우드 인프라
	Isomorphic Labs	21억 달러	시리즈 B	AI 신약개발
	Wayve	12.6억 달러	시리즈 D	자율주행 SW
중국	ByteDance	30억 달러	-	AI 콘텐츠 플랫폼
	Stepfun	25억 달러	-	생성 AI 모델
	Moonshot Technology	20억 달러	시리즈 D	생성 AI 모델
프랑스	Mistral AI	약 19.9억 달러	시리즈 C	생성 AI 모델
	Advanced Machine Intelligence	10.3억 달러	시리즈 1	산업용 로봇
	Brevo	약 5.8억 달러	-	마케팅·CRM SaaS
독일	Neura Robotics	14억 달러	시리즈 C	휴머노이드
	Clover	12.2억 달러	시리즈 A	에너지·태양광 SaaS
	Helsing	약 6.8억 달러	시리즈 D	방산 AI

6. 종합

○ 글로벌 AI VC 시장은 투자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는 동시에 미국, 후기단계, 상위기업, AI 모델 등을 중심으로 자금이 집중되는 구조가 뚜렷

- 2026년 상반기 미국이 전체 투자금액의 84.1%, 후기단계가 72.8%, Top 10 피투자기업이 67.5%를 차지했으며, 2,500만 달러 이상 대형 투자에서는 AI 모델 비중이 61.0%로 나타남
 - 특히 2025~2026년 프런티어 AI 기업의 반복적인 초대형 후속 투자가 확대되면서 국가, 성장단계, 기업, 분야별 투자 집중이 함께 강화되는 흐름

[표 11] 글로벌 AI 투자 트렌드 종합

구분	내용
초대형 거래 중심 투자 확대	2024년 이후 초대형 투자거래가 증가하며 글로벌 AI 투자시장 확대를 주도
미국 중심 투자 집중	글로벌 AI VC 자금이 미국을 중심으로 집중되며 국가별 투자 격차가 확대
후기단계 자금 집중 강화	거래는 시드·초기단계에서 폭넓게 발생하나 실제 투자자금은 후기 성장기업에 집중
프런티어 AI 기업 반복 투자	OpenAI, Anthropic 등 주요 프런티어 AI 기업에 대규모 후속 투자가 반복적으로 유입
AI 모델 중심 투자 전환	AI 서비스·애플리케이션 중심에서 파운데이션 모델 및 핵심 AI 기술 중심으로 투자 축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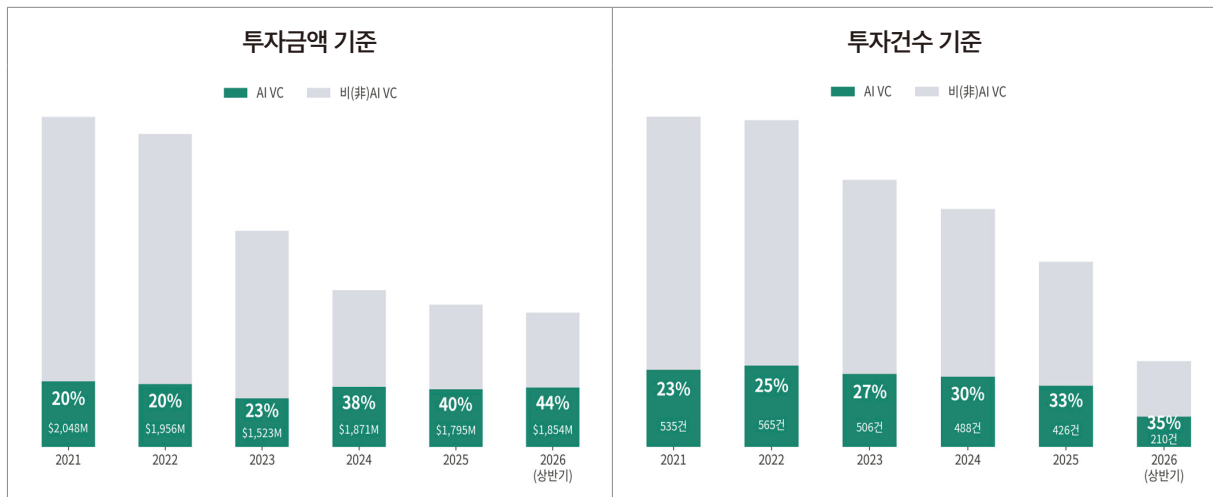
III 국내 AI 투자시장 동향

1. 국내 AI VC 현황

○ (AI 투자 비중 확대) 전체 VC 시장 내 AI VC 시장 비중이 빠르게 증가

- 국내 전체 VC 투자금액에서 AI VC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19.9%에서 2024년 38.3%, 2025년 40.4%, 2026년 상반기 44.3%로 상승
 - 2021~2025년 국내 AI VC 투자금액은 연도별 등락을 보인 반면 전체 VC 시장이 축소되면서 AI 투자 비중은 꾸준히 확대되어 '26년 상반기 기준 44.3%를 기록
 - * AI VC의 건당 평균 투자금액은 2021년 383만 달러에서 2026년 상반기 883만 달러로 상승하였으며 2024년 이후 전체 VC 평균을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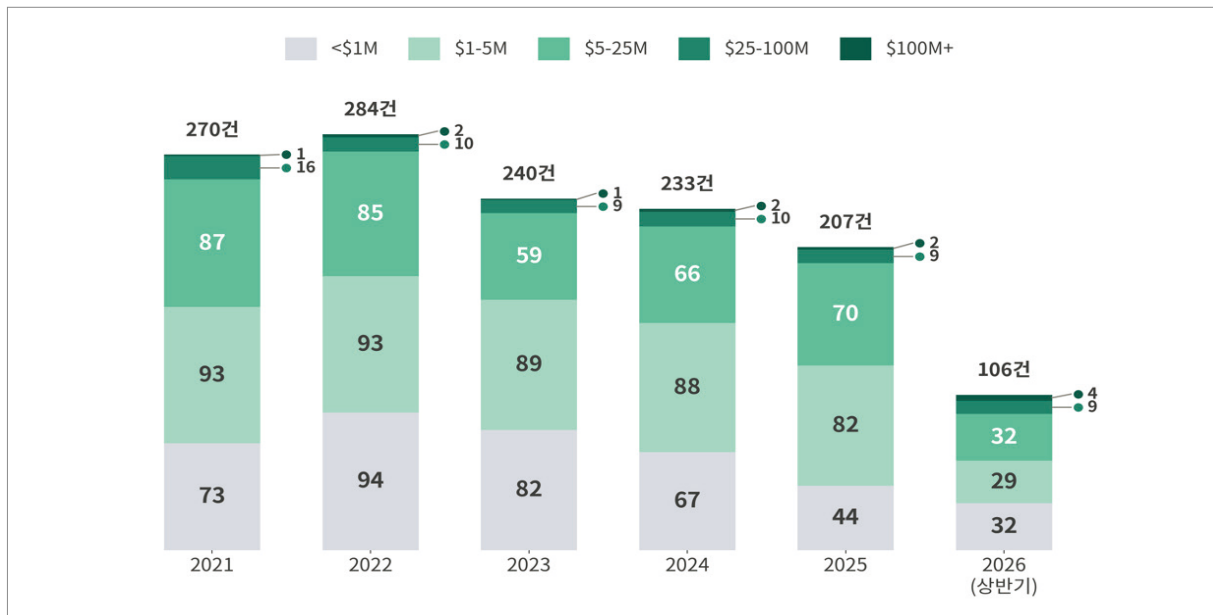
[그림 4] 국내 전체 VC 대비 AI VC 비중 추이('21~'26H1)



○ (거래건수) 국내 AI VC 거래건수는 2022년 565건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추세

- 2023년 506건, 2024년 488건, 2025년 426건으로 감소하였으며 2026년 상반기에는 210건을 기록
- 투자금액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거래건수 감소와 건당 평균 투자 규모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며, 국내에서도 일부 대형 거래의 영향력이 확대

[그림 5] 국내 AI VC 투자 규모 및 거래건수 추이('21~'26H1)



2. 투자단계별 동향

○ (후기단계 확대) 후기단계 투자금액 비중이 다시 빠르게 확대되는 흐름

- 후기단계 투자금액 비중은 2021년 66.4%에서 2024년 46.0%까지 낮아졌으나, 2025년 70.5%, 2026년 상반기 72.3%로 재차 상승하며 후기단계 중심의 자금 집중이 다시 강화
 - 같은 기간 후기단계 거래건수 비중은 2024년 30.5%에서 2026년 상반기 34.3%로 완만하게 증가한 반면, 투자금액 비중은 크게 상승하여, 후기단계 거래건수 증가보다는 개별 라운드의 대형화가 투자금액 집중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남
 - 2026년 상반기에도 시드 및 초기단계는 거래건수의 65.7%를 차지했지만 투자금액은 27.6%에 그친 반면, 후기단계는 거래건수 34.3%로 투자금액의 72.3%를 차지

○ (글로벌 비교) 2026년 상반기 후기단계 투자금액 비중은 글로벌 72.8%, 국내 72.3%로 유사하지만, 거래건수 비중은 글로벌 7.2%, 국내 34.3%로 차이가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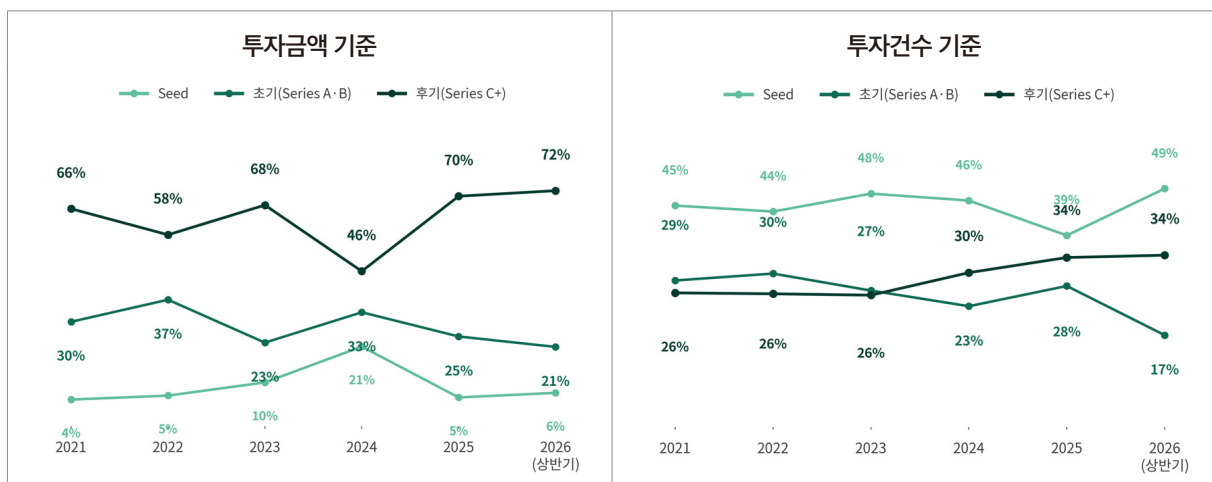
- 국내에서도 후기단계 중심의 자금 집중이 강화되고 있으나, 후기단계 거래건수 비중이 글로벌보다 높아 투자금액 집중 수준이 유사하더라도 단계별 거래구조에는 차이가 나타남
 - 또한 국내는 전체 투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일부 대형 거래가 후기단계 투자 비중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나는 특징

[표 12] 국내 AI VC 투자단계별 현황

(단위: 건, 백만 달러)

성장단계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상)
시드	건수 (비중)	233 (45.1%)	240 (43.8%)	233 (47.7%)	221 (46.2%)	161 (38.6%)	101 (48.8%)
	금액 (비중)	84 (4.1%)	105 (5.4%)	148 (9.7%)	398 (21.4%)	85 (4.8%)	118 (6.3%)
초기	건수 (비중)	149 (28.8%)	166 (30.3%)	130 (26.6%)	111 (23.2%)	115 (27.6%)	35 (16.9%)
	금액 (비중)	603 (29.5%)	718 (36.7%)	346 (22.7%)	607 (32.6%)	441 (24.7%)	396 (21.3%)
후기	건수 (비중)	135 (26.1%)	142 (25.9%)	125 (25.6%)	146 (30.5%)	141 (33.8%)	71 (34.3%)
	금액 (비중)	1,357 (66.4%)	1,131 (57.9%)	1,028 (67.6%)	856 (46.0%)	1,257 (70.5%)	1,341 (72.3%)

[그림 6] 국내 AI VC 투자단계별 비중 추이('21~'26H1)



3. 기업 집중 구조

○ (반복 투자 집중) 국내 AI VC에서도 일부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자금이 반복 유입되는 구조가 확인

- 금액이 확인되는 883개 피투자기업 가운데 분석 기간 중 2회 이상 투자를 유치한 기업은 313개로 35.4%였으며, 해당 기업군이 전체 공시 투자금액의 75.1%를 차지
 - 반복 투자 기업은 전체의 약 1/3에 불과하지만, 투자금액 기준으로 약 3/4을 차지해 일부 기업에 대한 후속 투자 영향이 크게 나타남

○ (상위기업 집중) 국내 AI VC 투자금액은 2023년 이후 일부 상위 피투자기업을 중심으로 집중되는 양상

- Top 3 기업의 투자금액 비중은 2021년 15.5%에서 2025년 29.6%, 2026년 상반기 55.8%까지 상승
 - Top 10 비중 역시 같은 기간 31.0%에서 45.0%, 74.5%로 확대되어 최근 국내 AI VC 투자금액에서 일부 상위기업의 영향력이 크게 증가
 - 2026년 상반기 국내 Top 3, Top 10 비중은 각각 55.8%, 74.5%로 높게 나타남

[표 13] 국내 상위기업의 투자 집중도

연도	Top 3 비중	Top 10 비중
2021	15.5%	31.0%
2022	17.4%	34.3%
2023	22.8%	43.9%
2024	27.9%	44.5%
2025	29.6%	45.0%
2026(상)	55.8%	74.5%

* 주: 연도별 피투자기업의 투자금액을 합산한 후 상위 3개 및 10개 기업의 투자금액이 해당 연도 전체 국내 AI VC 투자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산출

○ (주요 피투자기업) AI 반도체 기업과 AI 모델 기업이 상위권에 포함

- 리벨리온(Rebellions), 업스테이지(Upstage), 퓨리오사AI(FuriosaAI) 등 대규모 자금조달 기업이 상위권에 위치

- 대규모 후속 자금이 AI 모델·반도체 등 자본집약적 기술기업을 중심으로 유입되는 양상이 뚜렷

* 2026년 상반기에는 리벨리온(6,400억 원), 엑시나(XCENA)(2,020억 원), 업스테이지(1,800억 원) 등 주요 성장기업의 대형 투자 유치가 잇따라 발생

[표 14] 국내 주요 AI 기업 누적 투자 유치 현황(2026년 8월 공개자료 기준)

순위	누적 투자 유치				
	기업	누적 투자액(원)	최근 투자 유치	기준 시점	주 분야
1	리벨리온	1조 3,000억 원	프리 IPO 6,400억 원	'26.3.	NPU
2	업스테이지	약 4,000억 원	시리즈 C 1차 1,800억 원	'26.4.	생성 AI 모델
3	퓨리오사AI	3,417억 원	시리즈 C 1,736억 원	'25.7.	NPU
4	엑시나	2,685억 원 이상	시리즈 B 2,020억 원	'26.6.	메모리 반도체
5	뤼튼	2,300억 원	시리즈 C 1,000억 원	'26.8.	생성 AI 서비스
6	홀리데이로보틱스	1,725억 원	시리즈 A 1,550억 원	'26.7.	산업용 로봇
7	딥엑스	1,361억 원	시리즈 C 1,100억 원	'26.8.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8	디노티시아	1,250억 원	시리즈 A 900억 원	'26.8.	벡터 데이터베이스
9	보스반도체	1,020억 원	시리즈 A 870억 원	'26.2.	차량용 AI 반도체
10	파네시아	960억 원	시리즈 A 800억 원	'24.11.	메모리 반도체

* 주: 누적 투자 유치액은 PitchBook의 Raised to Date와 기업 발표·국내 주요 기사·기업정보를 교차 검증한 원화 공개액을 우선 적용한 참고치이며, 표의 기준 시점은 기업별 최신 공개자료 시점임(8월 기준)

** 자료: PitchBook, 각 사 발표, 연합뉴스, 머니투데이, 더벨, 파이낸셜뉴스 등

4. 분야별 투자구조 변화

○ (AI 모델 및 반도체 확대) 국내 AI VC는 응용서비스 중심 구조에서 AI 반도체 비중이 확대되고, 2026년 상반기 AI 모델 투자가 급증하며 모델·반도체 중심으로 재편

- 2021년 AI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분야는 전체 투자금액의 79.4%를 차지한 반면, AI 모델 1.3%, AI 반도체 7.1%로 응용서비스 중심의 투자구조가 뚜렷
 - AI 반도체 비중은 2024년 19.2%, 2025년 23.1%로 확대되었으며 2026년 상반기에는 AI 모델 비중도 26.8%로 급증하고 AI 반도체는 33.4%까지 상승
- AI 모델과 AI 반도체의 합산 비중은 2026년 상반기 60.2%로 확대된 반면, AI 서비스·애플리케이션은 21.0%로 하락
 - 특히 리벨리온, 퓨리오사AI, 엑시나 등 AI 반도체 기업과 업스테이지 등 AI 모델 기업의 대형 후속 투자가 이어지며 2026년 상반기 국내 투자 중심이 모델·반도체 분야로 빠르게 이동

[표 15] 국내 AI VC 분야별 투자금액 비중

연도	AI 모델	AI 반도체	AI 서비스·앱	AI 데이터	AI 컴퓨팅 인프라	피지컬 AI	기타
2021	1.3%	7.1%	79.4%	0.9%	1.8%	7.8%	1.6%
2022	0.0%	3.8%	69.9%	2.1%	9.0%	12.1%	3.1%
2023	0.4%	9.9%	57.6%	14.4%	6.6%	7.6%	3.6%
2024	5.0%	19.2%	41.5%	2.0%	1.5%	11.7%	19.1%
2025	2.5%	23.1%	54.3%	2.6%	2.8%	11.7%	3.1%
2026(상)	26.8%	33.4%	21.0%	4.4%	1.3%	10.3%	2.8%

* 주: 국내 AI VC 거래를 대상으로 기업 설명, 버티컬, 산업코드 및 핵심 사업내용을 활용하여 AI 모델·AI 반도체·AI 서비스·애플리케이션·AI 데이터·AI 컴퓨팅 인프라·피지컬 AI·기타로 자체 분류

[그림 7] 국내 AI VC 분야별 투자구조 변화(투자금액 기준, '21~'26H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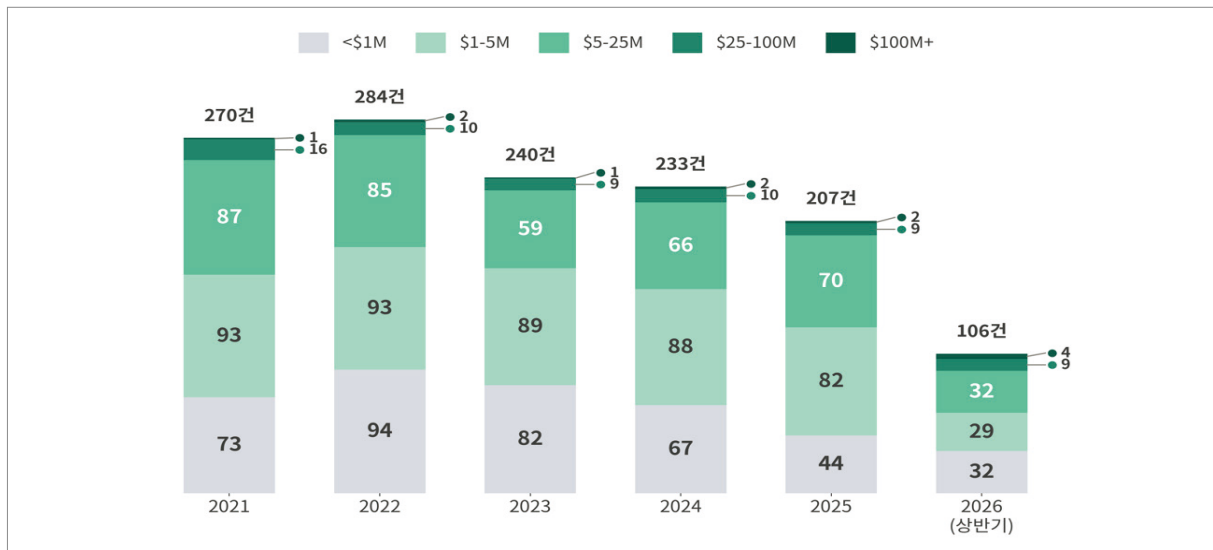
	AI 모델	AI 반도체	AI 서비스·앱	AI 데이터	AI 컴퓨팅 인프라	피지컬 AI	기타
2021	1.3%	7.1%	79.4%	0.9%	1.8%	7.8%	1.6%
2022	0.0%	3.8%	69.9%	2.1%	9.0%	12.1%	3.1%
2023	0.4%	9.9%	57.6%	14.4%	6.6%	7.6%	3.6%
2024	5.0%	19.2%	41.5%	2.0%	1.5%	11.7%	19.1%
2025	2.5%	23.1%	54.3%	2.6%	2.8%	11.7%	3.1%
2026(상)	26.8%	33.4%	21.0%	4.4%	1.3%	10.3%	2.8%

5. 거래 규모별 투자구조

○ (거래 규모 대형화) 국내 AI VC는 소규모 거래건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2024년 이후 대형 투자 거래의 영향력이 확대

- 2021~2023년에는 1억 달러 미만 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최근 소규모 거래건수는 감소하는 흐름
- 100만 달러 미만 거래는 2021년 73건에서 2025년 44건으로 감소했으며, 100만~500만 달러 거래도 같은 기간 93건에서 82건으로 감소
- 반면 1억 달러 이상 대형 거래는 2021년 1건에서 2026년 상반기 4건으로 증가하며 거래 규모의 상단이 확대

[그림 8] 국내 AI VC 거래 규모별 투자건수 비중 추이('21~'26H1)



6. 국내 종합

○ 국내 AI VC 시장은 절대 투자 규모의 급격한 확대보다는 후기단계, 상위기업, 대형 거래 중심으로 자금 배분 구조가 재편되는 흐름

- 2026년 상반기 후기단계 투자금액 비중은 72.3%, Top 10 피투자기업 비중은 74.5%로 상승하며 주요 성장기업의 대규모 자금조달 영향이 확대
- 분야별로는 글로벌의 AI 모델 중심 투자와 달리 국내에서 AI 반도체와 AI 모델이 함께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국내 기술·산업 기반이 반영된 차별적인 투자구조가 형성

[표 16] 국내 AI 투자 트렌드 종합

구분	내용
후기단계 투자 확대	초기단계보다 성장·후기단계 기업에 대한 대규모 자금조달 비중이 확대
상위기업 중심 투자 집중	일부 성장기업에 후속 투자가 반복적으로 유입되며 상위 피투자기업의 영향력이 확대
대형 투자거래 증가	전체 거래건수는 감소하는 가운데 일부 기업의 대형 투자 유치가 시장 규모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
AI 모델·반도체 투자 부상	AI 모델과 AI 반도체 중심으로 투자구조가 빠르게 전환
국내 기술 기반 반영	글로벌의 AI 모델 중심 구조와 달리 국내에서는 AI 반도체 기업군의 성장과 투자 유치가 함께 확대

IV 결론 및 시사점

1. AI 투자 동향 종합

○ (투자 집중) 글로벌 AI VC 시장의 성장은 시장 전반의 균등한 확대보다 미국 중심, 후기단계 집중, 상위 프런티어 기업 및 AI 모델 분야를 중심으로 자금이 집중

- 2026년 상반기 미국 84.1%, 후기단계 72.8%, Top 10 기업 67.5%를 차지하며 OpenAI와 Anthropic 등 일부 기업의 반복적인 초대형 후속 투자가 시장 확대를 주도

○ (국내 투자구조) 국내는 AI VC 절대 규모가 대체로 정체된 가운데 후기단계, 상위기업, 대형 거래 중심으로 투자구조가 변화

- 2026년 상반기 기준, 후기단계 투자금액 비중은 72.3%, Top 10 피투자기업 비중은 74.5%로 확대되어 일부 성장기업의 자금조달 영향력이 증가

○ (분야 구조의 차별성) 글로벌은 AI 모델 중심의 집중이 두드러지는 반면, 국내는 AI 반도체와 AI 모델이 함께 주요 투자 분야로 부상

- 최근 글로벌 2,500만 달러 이상 대형 투자의 AI 모델 비중은 61.0%, 국내는 AI 반도체 33.4%, AI 모델 26.8%로 상이한 투자구조가 확인

[표 17] 글로벌 및 국내 AI 투자 트렌드 종합 비교

구분	글로벌 AI VC	국내 AI VC	비교
시장 성장	투자 규모·AI 비중 동반 확대	전체 VC 내 AI 비중 지속 확대	글로벌은 시장 확대, 국내는 AI 자금 배분 비중 상승
초기 투자	시드·초기 거래 저변 유지	초기 거래 저변이 상대적으로 좁음	국내의 후기단계 중심 재조정
후기단계	소수 후기기업의 초대형 투자 중심	후기단계 거래가 비교적 폭넓게 형성	글로벌은 소수 초대형 딜, 국내는 후기단계 건수 비중 확대
기업별 집중	프런티어 AI 기업의 초대형 후속 투자 반복	주요 성장기업 중심으로 후속 투자 확대	상위 성장기업 중심 반복 투자 강화
투자 분야 변화	AI 모델 중심의 단일 축 집중	AI 반도체·AI 모델 중심의 양대축	글로벌은 모델 집중, 국내는 모델·반도체 양대 축
거래 대형화	초대형 거래의 시장 확대 주도	1억 달러 이상 대형 거래 증가	글로벌은 초대형 거래 중심, 국내는 대형 거래 증가 단계

2. 시사점

○ (초기 투자 기반 강화) 전 세계적으로 초기단계 자금공급은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초기 투자 기회와 기술 기반 및 시장 검증 기반 강화 필요

* '26년 기준, 글로벌 AI VC 시장에서 시드~초기단계는 거래건수의 92.8%를 차지하나 투자금액 비중은 27.2%, 국내에서도 시드~초기단계는 거래건수의 65.7%를 차지하는 반면 투자금액 비중은 27.6%

- **(AI 초기투자 확대)** 초기 AI 스타트업에 대한 전용 투자자원을 확대하여 시장 진입 단계의 자금공급 기반 강화 필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초기 AI 스타트업에 집중 투자하는 200억 원 규모의 'AI 모험펀드'를 신설할 계획⁶(26.7.)
- **(투자-컴퓨팅 연계 강화)** 초기 AI 스타트업의 높은 컴퓨팅 수요를 고려하여 자본과 핵심 인프라에 대한 접근을 동시에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
 - 영국의 소버린 AI 펀드*와 같이 기존 정책 펀드와 '고성능컴퓨팅 지원사업'을 연계하여 투자 이후 필요한 컴퓨팅 자원에 대한 접근성 제고 가능
 - * AI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와 함께 최대 100만 GPU 시간의 Sovereign Compute, R&D 자금, 정부조달 등을 연계하여 자본과 성장자원을 함께 지원
- **(전략적 투자-사업 협력 연계)** 첫 투자 이후 시장검증, 초기 고객, 레퍼런스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전략적 투자자의 자본과 사업 협력을 결합한 민간 투자모델* 확산 필요
 - * △(네이버 D2SF) 투자기업의 99%가 투자 당시 Seed~Series A 단계이며, 이 중 64%가 네이버와 구체적인 협업 아젠다를 발굴하는 등 초기 투자와 사업 협력을 연계⁷, △(NVIDIA 엔벤처스, 인셉션 프로그램) 투자와 함께 개발도구, 기술지원, 클라우드 크레딧, 투자자 네트워크 및 시장진출 기회를 제공⁸, △(현대차그룹 ZERO1NE) 그룹 현업부서와 스타트업 간 기술, 사업과제를 기반으로 협업 프로젝트와 실증기회 연계⁹

⁶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8284>

⁷ <https://www.epn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6389>

⁸ <https://www.nvidia.com/ko-kr/startups/>

⁹ <http://hyundai.com/kr/ko/brand/brandstory/campaigns/zero-one-ventures>

○ (성장자본 연계 강화) 반복적인 대규모 후속 투자가 시장 확대를 주도하는 만큼 유망 AI 기업이 성장단계별로 연속적인 자금조달 경로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 강화 필요

- (펀드 간 투자 이어달리기 확대) 모태펀드-국민성장펀드에서 추진 중인 투자 이어달리기* 체계를 초기, 스케일업, 성장단계 정책 펀드 전반으로 확대하여 후속 투자 경로 강화
 - * 우수 투자기업의 투자정보와 후속 자금 수요를 공유하고 공동 IR 및 1:1 밋업(Meetup) 등을 통해 성장단계 투자자와 매칭하는 방식으로 운영¹⁰
- (평가정보의 후속 활용) 정책 펀드 투자심사 과정에서 축적된 평가정보를 일회성으로 소진하지 않고 타 정책자금 및 민간투자의 후속 투자 검토에 활용하는 체계 마련
- 다만 평가정보의 타 기관 제공·활용을 위해서는 기업의 사전 동의 등 정보 활용에 관한 절차 마련이 필요
 - * (유럽위원회 STEP Scale Up) 일정 평가 기준을 충족한 기업에는 최종 투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STEP Seal'을 부여하여 다른 공공재원과 민간투자로의 후속 연계를 지원¹¹

○ (분야별 자금조달 기반 강화) 국내 AI 투자구조와 기술 및 산업 기반을 고려하여 분야별 기술개발 기간과 자본 수요에 맞는 투자환경 조성 필요

- (AI 투자 트랙 다변화) AI 반도체 및 모델 중심의 국내 투자구조를 보완할 수 있도록 피지컬 AI, 버티컬 AI 등 AI 분야에 대한 정책 펀드 투자 트랙 확대
 - * (영국 소버린 AI 펀드) Pre-Seed부터 Growth 단계까지 투자하며, 컴퓨팅, 인프라, 파운데이션 모델, 생명과학 AI (AI in Health & Life Sciences), 과학발견 AI(Scientific Discovery), AI 신뢰, 안전, 검증(Trust, Safety & Assurance) 등을 주요 투자영역으로 설정¹²
- 분야별로 필요한 자본의 규모, 회수 기간, 기술개발 기간이 상이하므로 일률적인 투자지원보다 기술 및 산업 특성에 따라 장기자본, 성장자본, 성장자원을 차별적으로 연계하는 투자체계 검토

¹⁰ <https://www.fsc.go.kr/po010101/87171?srchCtgy=&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¹¹ https://strategic-technologies.europa.eu/step-seal/step-seal-explained_en

¹² <https://www.sovereignai.gov.uk>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2025), “2024년 인공지능산업 실태조사”
- 머니투데이(2026), “국민성장펀드가 점한 리벨리온, 6400억 프리 IPO 투자 유치”
- 파이낸셜뉴스(2026), “리벨리온, 6400억 원 프리 IPO 투자 유치 … 기업가치 3.4조 원”
- 연합뉴스(2026), “업스테이지, 국내 AI 개발사 첫 유니콘 … 누적 투자 4천억”
- 더벨(2026), “AI 분야 쏠림 가속 … 업스테이지 1800억 원 규모 시리즈C 1차 클로징”
- 연합뉴스(2025), “퓨리오사AI, 1천700억 투자 유치 … 유니콘 됐다”
- 한국경제(2025), “퓨리오사AI, 1700억 투자 유치 … ‘차세대 칩 개발하겠다’”
- 리벨리온(2026), 투자 유치 및 기업 관련 공식 발표자료
- 업스테이지(2026), 투자 유치 및 기업 관련 공식 발표자료
- 퓨리오사AI(2025), “Announcing FuriosaAI's \$125M Series C Bridge Funding to Scale Sustainable AI Compute”
- XCENA(2026), “XCENA Raises \$135M Series B to Accelerate Deployment of Memory-Centric Computing Solutions”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6.07), “정부 ‘AI 스타트업 키운다’ … 2조 투자·500개 딥테크 창업팀 육성”
- 전자신문인터넷(2026), “네이버 D2SF, 초기기업 투자·협업 성과”
- 현대자동차그룹(2026), “ZER01NE(제로원)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 금융위원회(2026), 정책 펀드 간 후속 투자 연계(“투자 이어달리기”) 관련 보도자료

2. 국외문헌

- OECD(2026), “Venture Capital Investments in Artificial Intelligence through 2025”, OECD Policy Briefs, No. 50
- PitchBook(2026), PitchBook Platform, Venture Capital & Company Database
- Statista(2026), “Artificial Intelligence - Worldwide”, Statista Market Insights
- OpenAI(2026), “Accelerating the Next Phase of AI”
- Anthropic(2026), “Anthropic Raises \$65 Billion in Series H Funding”
- TechCrunch(2026), XCENA 및 글로벌 AI 투자 관련 기사
- NVIDIA(2026), “NVIDIA Inception Program”
- European Commission(2026), “STEP Seal Explained”
- UK Government(2026), “Sovereign AI Fund”